

### 양부남 전 부산고검 검사장 심석희 '고의충돌' 파헤친다

현재 빙상연맹 부회장...조사위원장으로 선임

대한빙상경기연맹 양부남 부회장이 최근 불거진 여자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당시 '고의충돌' 의혹 조사를 전 면에서 지휘한다.



연맹 관계자는 17일 "양부남 부회장이 여자쇼트트랙 고의충돌 의혹을 조사할 조사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조사위를 꾸리는 작업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심석희의 고의충돌 의혹은 한 인터넷 매체에서 심석희와 평창동계올림픽 대표팀 A코치가 당시 나는 모바일 메시지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대표팀 코치 측이 법정에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이 일로 심석희는 예정됐던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도 보류됐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심석희와 A코치는 "브랜드버리 만들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호주 남자쇼트트랙 선수 스티븐 브랜드버리가 2002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 남자 1000m 결선에서 최하위로 탈락다 앞서 있던 4명이 결승선을 앞두고 뒤엎겨 넘어진 사이 1위로 끝인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심석희는 이를 두고 "고의로 최민정을 넘어트리지 않은 것은 전문가들의 조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실이다.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최민정(23·성남시청) 측은 이를 고의충돌로 간주하고 연맹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최민정 측이 "심석희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승부조작을 넘어 상대 선수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갈등은 한층 증폭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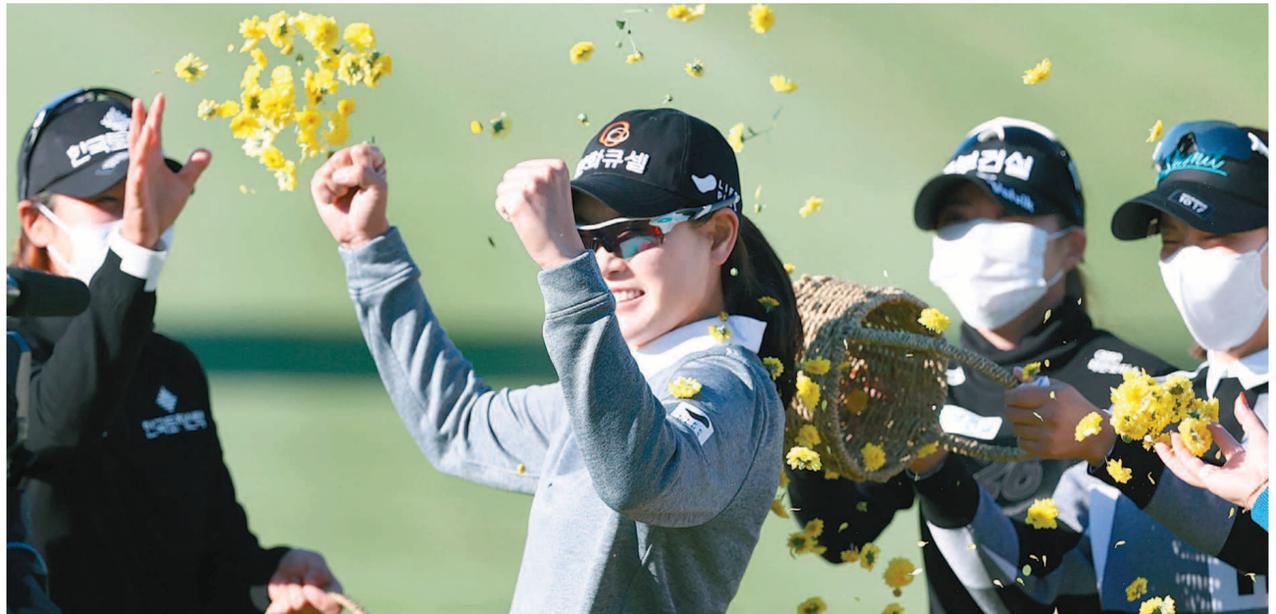
조사를 담당할 수장을 결정한 연맹은 대한체육회와 협의회 조만간 조사위를 구성하고 면밀히 사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연맹은 진천선수촌에서 강화훈련 중이던 심석희를 퇴촌 조치하고, 월드컵 시리즈 1~4차 대회 파견을 보류했다.

양 부회장은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과 광주지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그는 올해 2월 제33대 집행부에 포함돼 빙상연맹과 연을 맺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9@donga.com

## 이정민 5년7개월만에 우승 "두려움 지웠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최초로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열린 신설 대회인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에서 초대퀀에 오른 이정민이 동료들로부터 우승 축하 꽃잎 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KLPGA

'변형 스테이블포드'식 첫 대회 4R 버디 10개 무서운 몰아치기 "공격적 플레이 나에게 잘 맞아 오랜만의 우승...마음이 복잡"

"골프를 하며 상처를 받았고, 두려움도 갖게 됐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했다."

5년 7개월 만에 찾아온 우승. 투어 12년 차 베테랑은 담담했다. "난 천재 골퍼가 아니니 지금처럼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보낼 것이다"며 살며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정민(29)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최초로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으로 진행된 신설 대회에서 '초대 공격골프 린'에 올랐다. 17일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익산CC(파72)에서 펼쳐진 '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총상금 10억 원) 4라운드에서 버디 10개와 보기 1개로 19점을 보며 최종합계 51점으로 47점을 기록한 안나



짜릿한 역전우승으로 통산 9승을 달성한 이정민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제공 | KLPGA

린(25)을 4점 차로 따돌리고 우승상금 1억8000만 원을 손에 넣었다. 투어 통산 9승째.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은 알바트로스 8점, 이글 5점, 버디 2점, 파 0점, 보기 -1점, 더블 보기 이하 -3점 등으로 각 홀 성적에 매긴 점수를 합산해 승위를 가린다. 파 2개보다 버디 1개, 보기 1개가 더 점수가 높다. 보다 공격적인

선수가 유리하다. 3라운드까지 32점으로 선두 박민지(23·40점)에 8점 뒤진 공동 8위에 머물렀던 이정민은 마지막 날 때서운 '몰아치기 본능'을 과시하며 점수를 쌓았다. 2번(파5) 홀에서 첫 버디를 낚은 뒤 7번(파4) 홀에서 7.5m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리는 등 전반에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5점을 얻었다.

후반은 그야말로 '버디 파티'를 벌였다. 10번(파5) 홀에서 2점을 보낸 뒤 12번(파4)~13번(파3)~14번(파4) 홀에서 3연속 버디를 기록했고, 15번(파4) 홀에서 잠시 파로 숨을 고른 후 16번(파3)~17번(파5)~18번(파4) 홀에서 재차 3연속 버디로 포인트를 쌓았다. 18번 홀에서도 6.7m 거리의 퍼트가 홀컵에 빨려 들어가는 등 유독 남다른 퍼팅 감각을 뽐냈다.

2010년 투어에 데뷔해 그해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데뷔 첫 승을 따냈던 이정민은 2015년 한 해에만 3승을 거두는 등 한동안 빼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2016년 3월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통산 8승을 신고한 뒤 우승

트로피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올해 최고 성적은 6월에 열렸던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거둔 공동 2위.

"내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스코어에 따라 차등해 점수를 주는 이번 대회 방식이 내게 잘 맞는 것 같다"고 밝힌 이정민은 "15번 홀을 지날 때 리더보드를 봤다. 무조건 버디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짜릿한 역전 우승의 비결을 털어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경험하는 우승이라 좋기도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다"는 그는 "그동안 (성적이 좋지 않아) 골프를 하면서 상처를 받았고 두려움도 느꼈다. 두렵다보니 우승권에 다가서도 소극적으로 치게 되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돌아본 뒤 "앞으로도 골프를 치면서 상처를 받았지만, 이번처럼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10개를 잡으며 '라이프 베스트'인 62타를 기록, 20점을 보태고 1위로 올라섰던 박민지는 시즌 7승에 도전했지만 최종합계 45점으로 공동 3위에 올랐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모델 출신 연기자 전성시대' 왜?

정호연 '오징어게임'으로 스타덤 장윤주 영화 '제자매' '1승' 주연 이주영 영화 '독전' 등 꾸준한 활약 "연기하지 않는 듯한 느낌 매력적"

'40만에서 2000만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속 새터민 역할을 연기한 정호연의 SNS 팔로워 증가세이다.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인기를 확인시키는 동시에 정호연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정호연은 2013년 SBS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이후 루이 뷔통, 샤넬 등 세계적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해왔다. 지난해 초 미국 뉴욕 패션위크 참여자 머물다 '오징어게임'에 캐스팅되면서 연기자로 변신, 데뷔작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모델 출신 연기자가 거둔 최대의 성과로 꼽힐 만하다.

하지만 그 못지않은 활약으로 연기자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는 이들이 또 있다. 장윤주와 이주영이 빼놓을 수 없는 모델 출신 연기자로 빛을 발하고 있다.

장윤주는 1997년 데뷔해 국내 대표적인 모델로 꼽혀왔다. 서구적인 이미지가 각광받던 분위기를 동양적 개성 강한 외모의 시대로 탈바꿈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2015년 1000만 영화 '베테랑'으로 연기 데뷔하며 관객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각인됐다.

'베테랑'의 연출자 류승완 감독은 그가 2014년 MBC '무한도전'에 출연하며 "연기를 못하는 척, 발연기를 하는 척 연기했다"면서 "영특함"에 높은 점수를 줬 캐스팅했다. 이를 입증하듯 장윤주는 지난해 '제자매'로 아시아필름어워즈 여우조연상에 후보 오를 만큼 재능을 인정받고 있다. 뒤 이어 현재 '1승'의 주연으로 나서고 있다.

동덕여대 모델과 출신인 이주영은 2015년 단편영화 '몸값'으로 연기 데뷔했다. 이듬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미장센 단편영화제 등에서 적지 않은 상을 받은 영화를 통해 이주영도 아시아국제단편영화제 '단편의 얼굴상'과 대단한 단편영화제의 '대단한 배우상'을 수상했다. 이후 2018년 영화 '독전'으로 더욱 강력한 인상을 남긴 그는 tvN 드라마 '라이프'로



모델 출신 배우 정호연, 이주영, 장윤주(왼쪽부터)가 각기 다른 개성으로 영화계에서 새롭게 입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CJ ENM

대중적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맞았다. "한 미술작가의 전시회 영상에 출연하며 연기의 맛을 처음 느꼈다"는 그는 오디션에 응시하며 자신의 길을 열었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 '보이스'의 흥행에도 힘을 보탠 그는 장윤주와 함께 '1승'에 출연 중이다.

이들 모델 출신들의 힘은 자연스러움에서 나온다. '몸값'으로 재능을 알리고 지난해 넷플릭스 영화 '폴'로 각광받은 이충현 감독은 "이주영의 연기를 하지 않는 듯한 느낌"에 손을 들어주었다. '베테랑' 류승완 감독이 장윤주를 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모델 활동으로 익힌 다양한 표정과 몸짓의 표현도 이들 연기자에게는 힘이 된다.

키와 몸매 등 신체적 조건이 활동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모델 영역의 특성상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전업'을 피해야 하는 것도 모델 출신 연기자들이 잇따라 나오는 배경이 된다. 정호연은 "모델 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력이 하나둘 떠나가는 날에 무엇을 할까 고민했다"면서 "책과 영화를 보며 나도 저런 표현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 연기 교습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구매금액은 10만원 이하**  
**구매연령은 만 19세 이상**

•만 19세부터 구입할 수 있고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Lotto 6/45 985회 당첨번호 (추첨일: 2021년 10월 16일)**

1등 당첨번호	17	21	23	30	34	44	2등 보너스 번호	19
1등 총 당첨금	2,434,752,975 원						2,434,752,975 원	2,434,752,975 원
2등	65,450,349 원						65,450,349 원	65,450,349 원
3등	1,572,229 원						1,572,229 원	1,572,229 원
4등	50,000 원						50,000 원	50,000 원
5등	5,000 원						5,000 원	5,000 원

1등 총 당첨금: 2,434,752,975 원 (2, 4, 3, 4, 7, 5, 2, 9, 7, 5, 0)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의 50% 이상입니다. 2등~5등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동행복권 콜센터: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www.dhlotte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해당 회차 지급계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 사항  
• 복권은 1년 및 10년 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정수본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자선본 복권 구매는 중독의 예방을 위하여 1회 10만원 이하로 구매 가능합니다. 당첨금만 1000~5000~5000~5000~5000 원입니다.